

2011 가서 제자 삼아라

[바 28:19]

<함께하는예배소식>

1. 함께하는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목회실에서 환영 및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2. 주보에 기재된 주간 나눔의 말씀을 읽고 가정 및 소그룹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2011 표어 : 가서 제자 삼아라(마28:19)
4. 전도실천: ①금년도 전도대상 정하고 기도하기. ②직접 전도하기
5. 수료식: 다음주일 낮 2010년도 바이블아카데미 초급반 수료식
6. 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교회당

<유투공동체에배소식>

1. 유투공동체 이후 순모임이있습니다.
2. 순장 및 공동체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3. 예배팀원으로 섬길 지체를 모집합니다. 문의및신청 : 이요섭

[바 28:19]

1.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전주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교회 이름은 “함께하는교회(Together Community Church)”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된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며, 개혁주의 신학과 그 유산들인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신조’, ‘톨트신경’, ‘벨직신앙 고백서’ 등을 배우며, 그 교리를 실천하는 현실적 증표를 기록한 사명과 헌신을 우리교회의 표지(얼굴)로 삼았습니다.

3. 우리교회는 바이블아카데미 안에 성경대학을 개설하여 초급반(기독교교리공부 10주과정)과 중급반(성경의숲을보는교육 8개월과정)과 고급반(역사, 사상, 문화관, 세계관 공부, 약 2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우리교회는 이단이 난무한 시대에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안내해 주고 치유해 주는 사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30일

함께하는교회표지

-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순전한 말씀 선포
- *개혁주의 신앙 실천
- *기록한 사명과 헌신

바이블 아카데미

1. 성경대학 운영
2. 기독교 사상 세미나
3. 회복 사역 센터 (이단상담 & 치유)

공동체 예배시간

주일함께하는예배	10:30
유투공동체연합예배	14:00
유초등부	15:30
수요예배	19:30
금요기도회	21: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교회

담임목사 오명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40-31
(☎ 063-905-3355)
(✉ dasisijac@hanmail.net)

주일함께하는예배

오전 10시 30분

인도:오명현목사

전 주(프롤로그)		반주자
시편낭독	시 5:11-12	오명현목사
영광송	630 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삼위송	43 장	
성시교독	교독문 5번	
경배송	23 장	
기도		정재용 집사
성경봉독	요 6:1-15	
봉헌	찬송 3/4 장	헌금위원 정재용집사
봉헌기도		오명현목사
말씀강론	오병이어익기적①	오명현목사
기도		인도자
송영	5 장	다같이
축도		오명현목사
후주		반주자
교회소식		인도자

다음주 기도: 서재호집사
현상 위원:정재용 집사
안내위원:이정환집사, 함점순집사

수요예배안내	본문	행 10:9-23	
	말씀	베드로야 고넬로를 만나라	오명현목사
	기도		백현숙사모



함께 하는 칼럼

본향을 찾는 순례자

목회칼럼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제께고요 ㄹ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ㅈ” 설날 노랫말 중의 일부이다.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 시절이 추억 속에 아른거린다. 높이 날아 오르는 방편엔, 가오리엔, 꼬리연처럼 하늘을 날고픈 동심의 꿈을 갖는다. 강추위가 계속되는 선달의 밤중은 천연 빙상 경기장이었다. 구하기 힘든 판자 조각에 굵은 철사줄을 대어 만든 스키토(스케이트) 타느라 점심도 건넨다. 눈두렁 발두렁 쥐불놀이 하다가 나이롱 양말 태워먹으면 집에 들어가기 겁이 났다.

양지 밝은 곳은 딱지치기 장소였다. 친구 선후배와 어울려 딱지 치다가 누군가가 설날 자랑을 꺼낸다. 기다렸다는 듯이 ‘설날에 우리 엄마가 운동화 사준다고 했다’, ‘서울간 우리 큰누나가 설날에 장갑 사 가지고 온다고 했다’, ‘설날에 우리 삼촌이 스케이트 사준다고 했다’, 등등의 설날 자랑으로 한나절을 보내곤 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단대목의 시장, 2, 3일 전부터 객지 나간 자식들 동구 밖까지 마중 나오는 어머니들, 양손에 선물 들고 고향 찾는 이들, 만나는 이들과 반가움의 인사들, 어른들께 예의 바른 세배, 덕담과 함께 복을 빌어주는 어른들, 이렇게 어린 시절의 설은 기대가 있었고 포근함이 있었다.

객지 사람이 된 나에게 설 명절은 자연히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 명절과 고향은 뗈 수 없는 함수 관계인 것 같다.

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가? 철학자 플라톤은 귀소본능 때문이라고 하였다. 플라톤의 이데아론(theory of idea)을 보면 이데아(idea)만이 참 실재의 세계라고 하였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이데아(idea)의 모사(模寫)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인간도 이데아(idea)의 모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의 자리 곧 이데아(idea)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본능(歸巢本能)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귀소본능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부모형제의 따뜻한 품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품은 그 품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따뜻하고 넓은지를 모른다. 돌아가신 후에 더욱더욱 그리워진다. 아버님이 75세 된 초겨울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다. 아버님 상 치른 얼마 후에 적적하실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서는데, 토방 위에 신발이 한 켤레뿐이었다. 아버님 신발이 없는 토방이 왜 그리 쓸쓸하게 느껴지던지,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고향은 지금도 그리웠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 우리의 본향은 플라톤이 말한 막연한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다. 육신의 부모와 비교될 수 없는 따뜻한 품을 가진 분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다. 그곳이 곧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영원히 거할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고향의 그리움은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는 천국은 그런 목마름이 없다. 그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저런 조건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를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향을 보장받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품이 있기에 설 명절이 따뜻하다. 오늘도 본향을 찾는 순례자로서 아버지의 품을 기다리기에 따뜻함이 가슴에 채워진다. ■

종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김

창24:1-27



창세기 22장 20-24절을 보면 갑자기 나홀의 가문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삭의 결혼과 관련하여 기록되었음이 틀림없다. 창세기 24장 20절을 보면, 이삭이 나홀의 가문 중 브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 점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으로 족보가 언급되고 있다.

1. 종들과 언약을 맺음
 - ① 아브라함은 이제 140세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②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언약의 가문을 중요시했다. ③ 그래서 가장 신임하는 종을 불러 맹세의식을 거행했다(창24:2). 그리고 반드시 나홀의 성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2. 종의 신실한 임무수행
 - ①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한 종은 그 약속을 지켰다. ② 멀리, 약 800km 떨어져 있는 나홀성, 곧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나홀과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 ③ 그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와 순조롭게 그 여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신실한 종의 믿음을 보여준다.



정결한 리브가와 혼인을 하다

창24:28-67



리브가는 정결한 처녀였다(16절).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상징을 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계19:7-8). 또한 리브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너그러운 여인이었다(18-19). 종은 아브라함이 보낸 여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종의 신실성은 주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찬송하였다는 점이다.

1.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 ① 종을 만나고 종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리브가는 자기 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② 그의 오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31). ③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의 가족들에게 왜 왔는지 그 목적을 밝히면서 결과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34-49).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 라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왔음을 시인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허락하겠다고 한다(51).
2. 가겠느냐? 가겠나이다
 - ① 리브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족과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삭에게로 갈 것인가? ②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는 좀더 머물러 있다가 가기를 원했다(55). ③ 그러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겠다고 결정을 내렸다(58). 아브라함의 종도 서둘러 리브가도 서두른다. 가족들과 다시 못 볼 길을 떠난다. 여호와와 거룩한 뜻을 이루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60).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면 아담에게 주신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문제가 된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줄기로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기로 하셨다. 언약은 생명이 담보되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은 홍수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 그 언약이...

이 사건은 예언적인 교훈이 있다. 이 사건은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으며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대하3:1). 이삭은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양은 산에서 보였고, 그리스도는 성전에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삭의 순종은 털 깎는 짐작한 어린양처럼 예수님께서 짐작하게 순종하셨다.

적용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창22:1-24

목회자간담회

22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담고 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을 나타내려고 유혹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도록 돕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다. 아브라함을 시험(test)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한 명령이었다.

1. 모형적 교훈을 보게 된다

①이 사건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담겨져 있다.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언약의 아들이었다. ②이삭과 예수는 둘 다 지적적으로 출생했다. 물로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죄없이 나셨다. ③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 ④이삭은 나무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삭의 사건은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사건은 실체이다.

2. 실천적인 교훈을 보게 된다

①진실한 신앙은 시험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이삭의 생명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다. ②귀하게 얻은 아들이기에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였기에 시험을 무사하게 통과하였다. ③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다.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 중에서 공식적으로 구입한 최초의 땅이었다. 이곳을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에 거하듯 죽어서 묻히는 곳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에 대한 확신의 한 행위였다. 언약 백성은 세상의 것에 기대지 않으며,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창23:1-20

목회자간담회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특이한 것은 사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언급된 것이다. 사라는 여자로서 죽은 년대가 성경에 기록된 단 한 사람의 여자이다. 사라의 언약을 받은 입장에서보다 그의 생의 자국이 여자로서 매우 슬픔이 서려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낳은 것에 대해서 극진하게 존경을 표시했다.

1. 사라의 일생에 새겨진 슬픔

①사라는 언약을 받았으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아픔, ②두 번이나 다른 왕의 아내가 될 뻔한 가슴 철렁했던 위기, ③늙은 몸으로 얻은 아들이 번제로 죽을 뻔한 소름끼치는 일들을 겪었다.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들을 놓아주지 못한 모성 때문인지 이삭은 나이 37세가 되었지만 장가를 가지 못했다. 그러나 사라의 죽음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손에서 놓을 수 밖에 없었다.

2. 막벨라 굴을 장지로 사다

①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슬퍼하며 애통했다. 가슴이 아프도록 말이다. ②아브라함이 헷사람들에게 장지를 요청했다. 헷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왕자로” 고백했다(창23:6).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했다. ③그러나 아브라함은 헷사람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기어코 사라를 장사할 땅을 돈을 주고 매입했다.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①

예수님의 사역(23강)

요6:1-15

들어가는 말

주님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요5:46-47). 주님은 자기 영광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다고 구제불능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발길을 갈릴리로 돌리셨습니다. 요한 복음은 한결같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언급합니다. 모세 율법이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강조합니다(요14:6).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로 사역을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이 점을 볼 수 없다고 단정을 하셨습니다(요1:11, 2:20, 3:5, 5:16,47).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드러난 구원의 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릴리로 바다가로 가신 예수님

주님의 사역을 보면 찾아오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등을 돌리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용서를 구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한없이 넓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자들은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5장의 사건이 있었던 이후를 말합니다. 안식일 날 밤 고치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증오의 불길이 점점 타오릅니다.

주님은 산상 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하였습니다(마7:6).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소중성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집을 지키려고 진리를 밀어냅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하시던 주님이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될 수 있으면 떠나 있으려는 마음, 곧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심리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는 민중들의 이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요2:1-11),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시고(요4:53-53),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다 할지라도 민중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 예수라고 하는 자가 두각을 나타내더니 민중이 예수님에게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의와 가치는 어디로 가고 민중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유대주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의 목적이 올바른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안에 세 개의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따르다, 행하다, 보다’는 동사는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즉 민중들이 지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따랐고 예수님의 기적도 계속 되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군중들의 마음을 2천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의 손에 든 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기 현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공리적(功利的)인 심사라고 말합니다. 민중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입니다.



함께하는 일꾼

말씀



그런 군중들을 주님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요6:34). 이미 군중들의 수준이 율법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의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들에게 민족의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출19:4-6). 그러나 그 사명을 고취시키는 선지자가 사라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율법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뀝니다. 진리가 없는 군중들은 누구를 만나야 큰 떡을 얻을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등치고 간을 내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단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월절의 관계

예수님이 따르는 군중들과는 거리를 두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3절). 이 때가 유월절 명절이 가까울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기에는 유월절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적 관계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오래 전의 역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어린양을 잡되 각 사람의 수에 따라서 양식이 되도록 잡으라고 하였습니다(출12:4).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축제가 되는 절기입니다. 즐거운 식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식사가 끝나지 않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게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출12:14).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도 그 절기가 주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절기를 이용해서 돈 버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주님이 성전 뜰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몰아내셨던 것입니다(요2:13-16).

이처럼 유월절은 즐거운 식사로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매년마다 지키는 유월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상함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새로운 각성과 부흥을 결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식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나누는 식사와는 사뭇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 식사는 은혜가 개입된 식사입니다. 먹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럽고 추한 옛 사람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식사에는 높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장차 천국의 한 모습을 먹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과 빌립의 영적 수준

그런데 이런 이상(理想)을 가슴에 품지 못한 채 예수님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군중들이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군중들은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땅엿 것을 채우려는 몸부림은 웰빙과 같은 여유와 낭만이 아닌 먹어야 산다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큰 생각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허기진 군중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본문 6절에서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빌립의 신앙의 정도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때에 빌립이 경제적인 답을 합니다.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돈을 조금씩 받을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정만 오천 명입니다. 빌립은 상황판단을 아주 빠르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상황 판단은 믿음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하느냐? 자기 계산으로 하느냐?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인간적인 판단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한 빌립의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앞서버렸던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메시야로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이삭만큼 반복된 약속과 기다림 속에 태어난 인물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은 구원자로 오실 메시야의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긴긴 역사동안 반복적으로 메시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지 않으신다. 이삭의 탄생을 보증한다.

1. 이삭이라 이름을 짓다

① 전혀 불가능한 일이 사리에게서 일어났으니 곧 90세에 아들을 낳았다. ②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웃음)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실수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③ 이삭을 통해 누릴 축복을 생각하면서 난지 말일만에 할례를 행했다. 언약관계를 표시하는 믿음을 보였다.

2.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다

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는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다. ② 아브라함은 이삭이 세살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때에 못마땅해 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③ 육체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를 핍박했다(갈4:29).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핍박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죄의 속성을 따라 살지 않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다. 그러기에 이웃과 늘 대하며 활동한다. 그러나 직장, 학교, 사회 등에서 이해관계의 선후를 가려야 할 때 막무가내의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다. 때때로 억울하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양보를 하거나 포기를 할 때가 있다.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의 표본을 보여준다.

1.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청함

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지역에 들어왔을 때 사리의 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 ② 그런데 나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찾아왔다. ③ 이 때에 아브라함은 빼앗긴 우물을 언급했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줌으로 후하게 대접했다.

2. 브엘세바 언약을 맺다

① 아브라함의 후한 대접은 화목도 꾀하고 우물을 자신의 재산 목록으로 삼으려는 뜻이 담겨져 있다. ②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우물 값으로 양양 새끼 일곱 마리를 주었다. 그리고 맹세를 받았다. ③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방의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경건한 신앙의 표현이다. 그는 화목도 꾀하고 언약백성의 성결함도 지켰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대해서는 불신자도 천국백성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화목을 꾀해야 한다. 먼저 친절함과 공손함을 보여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되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롬12:18).

라”고 했다. 믿음은 나 개인의 열정의 고백이 아니다. 나의 주관적인 결단이 아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표준이 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표준으로 세우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찾았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본질을 규명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갔다.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표준을 따라 믿었을 때 보장된다. 내 나름대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결론을 맺겠다. 아브라함은 시대를 초월하고 있다. 그는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그를 영생의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는 믿음으로 살되 안주하지 않고 불꽃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충실했다. 믿음은 내게 주신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행위 의존적인 신앙생활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한다. 그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생명의 열매만이 영적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된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만물의 주인으로 자신들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먹이시고 입하신다는 산상 교훈의 주옥같은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훌륭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는 굳은 믿음이 없으면 항상 현실적인 계산만 하다가 결국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의 문제는 주님이 하신 일을 2년 동안 보았음에도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허기를 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주님을 채워주시므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यो”라고 하였습니다(사1:19). 또한 이사야 55장 2절을 보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 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시22:26).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게으르고 악해서 진리를 떠날 때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능력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투공동체 소개

유투공동체는 Youth Together 의 약자로 함께하는 교회의 젊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Youth Together(유투)공동체 예배의 Vision.

-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 공동체 헌신과 섬김이 있는 예배
-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예배
-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유투공동체를 섬기는 분들 (Church Leadership)

대학청년부 : 오명현목사 (010-5207-0699)
부장 집사: 정재용집사 (010-8456-0070)
대청사역자 : 김민수 집사(010-4631-2420)

청년회장: 이요셉 (010-6757-1040)
여호수와순장: 오영준(010-2773-9258)
갈렙순장: 김은중(010-9766-1119)
요셉순장: 서주원(010-6812-2033)

Holy Community

1.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신 이유를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세요.
2.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정리해 보세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떠한지 하는가를 나눠보세요.
3.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나갔어야 하는 점은 무엇이었던가를 정리해 보세요. 또한 믿는 자들의 식사가 지니는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나눠보세요.
4.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또한 대답을 한 빌립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가를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세요

순 복습 교제 후, 의문사항 및 목회자와의 말씀나눔을 원하시면
순장님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Worship

유 투

유 투
공동체
예배

Youth
Together
Community

오후 2시 인도:오명현목사

전 주(프롤로그)	반주자
종보기도	정재용집사
사도신경	다같이
다함께 찬양	예배팀
기도	오영준형제
환영	예배팀
성경봉독 롬4:16-25	황희형제
말씀 믿음의 나를 지탱하게 한다	오명현목사
봉헌	오명현목사*
축도	오명현목사*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예배 위원

	1월 2일	1월 9일	1월 16일	1월 23일	1월 30일
대표기도	오영준	김희호	김민수	오영준	김한나
성경봉독	서예지	이현준	서주원	황희	김영진

믿음 위에 나를 세워라

제14강

롬4:16-25

시작하는 말

짧은 말 한마디가 한 권의 책보다 더 위력이 있을 때가 많다. 많은 말을 들어서 인생이 뒤바뀌어지기 보다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울은 613개 조항의 율법을 붙들고 있을 때는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맥색 도상에서 “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이 한마디에 그 인생이 뒤바뀌었다. 그 뒤로 바울은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웠다.

믿음의 대상이 동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는 사조가 이어져 왔다. 그 대표적인 사조가 자연주의이다. 신약시대의 사두개파가 그랬다. 18-19세기에는 자연주의가 그랬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에는 프로이트에 의해서 자연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 타계한 법정스님의 무소유 운동이 자연주의를 실현할 것처럼 한바탕 소용돌이쳤다. 자연주의 세계관에 각인된 생각으로는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1884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란 논문이 나왔을 때 유럽사회가 진화론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런데 창조이래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고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믿음은 탁상공론이 아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천적이라는 점이 우수하다. 본문 19-22절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모두 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하셨던 언약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다. 여기 “믿으니”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아만(?) 𐤀)”이라고 했는데, 이는 ‘확증하다’, ‘지지하다’, ‘믿음만 하다’, ‘신뢰하다’, ‘동의하다’ 라는 뜻이 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방법이 아멘하는 것이다. 아멘하는 신앙이 맹신적이거나 탁상공론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큼 순종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본문 20-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너무 감격스러운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현대 교회의 큰 함정은 모든 결과를 사람에게 돌린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본 출처를 하나님에게 두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인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범의 예가 됨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다. 본문 23-24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유 투
공동체
말씀